『영미연구』
제68집 (2026): 129-152
http://doi.org/10.25093/ibas.2026.68.129

“굶주린 존재”가 베푸는 환대: 강용흘의 『동양 서양으로 가다』

최 하 영
단독 / 건국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강용흘의 『동양 서양으로 가다』에 대한 비평적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던 주인공 한청파의 농촌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이 작품의 근대성 비판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음식과 철학의 관계를 사유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을 훼파하려는 레이몬드 D. 보이스버트와 리사 헬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한다. 그들이 『식탁 위의 철학자들』에서 개진한 “굶주린 존재”, 음식, 환대의 개념을 빌어와 『동양 서양』을 읽을 때,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흥미로운 지점이 포착된다.

한청파는 근대적 주체로서 이성을 사용해 자신과 떨어져 있는 외부의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그의 의도는 서사 내에서 자주 추위와 배고픔, 피로 등의 육체적, 물질적 요소로 인해 방해받고 좌절된다. 이는 보이스버트와 헬트가 지적하듯 인간이 육체 속에 자리 잡은 정신이 아니라 “굶주린 존재”이며,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동양 서양』에서 재현되는 다양한 식사 장면은 음식의 문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살아있는 존재는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자명하나 자주 간과되어온 사실과 연결되며, 이는 “굶주린 존재”로서

다른 “굶주린 존재”를 대접하는 환대의 윤리로 이어진다.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근대 합리주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상징적 인물로 농부를 제시하는데, 한청파가 묘사하는 히긴스 씨 부부는 그 모델의 구체적 예시를 보여준다. 여름이 끝난 후 한청파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만, 그의 농장 경험은 근대의 절정에서 나온 짧지만 강력한 탈근대적 비전을 보여준다.

주제어: 강용흘, 『동양 서양으로 가다』, 레이먼드 D. 보이스버트, 리사 헬트, 굶주린 존재, 음식, 환대

1. 들어가며

1937년 강용흘(Younghill Kang 1898-1972)의 『동양 서양으로 가다』 (*East Goes West,* 이하 『동양 서양』)가 출판된 이래 많은 비평가와 학자들이 이 작품이 단순히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이민자의 기분 좋은 성공담”(Roh 30)이 아니라 미국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담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예를 들어 이선영은 『동양 서양』을 “피카레스크적 모험이기도 하고, 1920년대 이민자의 도시 생활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번쩍이는 산업화된 외관 뒤의 위선과 겉치레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적인 비평”(378)으로 읽는다. 민진영은 이방인 한청파(Chungpa Han)가 어떻게 주류 독자층을 거스르지 않으며 미국이 정립한 근대성의 주요한 지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와 이면을 전략적으로 비판하는지 설명한다. 특히 대도시 호텔과 백화점에서의 노동, 서적 판매의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초래하는 도덕성의 타락과 인간성의 해체를 묘사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중은 발터 벤야민의 산보자(flaneur) 개념을 한청파와 그의 멘토 김도원(To Wan Kim)에게 적용한다. 벤야민이 제시한 산보자는 파리의 아케이드를 거닐며,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동시에 굴복하는 사잇-존재(interstitial being)로서,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한 것의 회복을 갈망하며

치유될 수 없는 우울(melancholia)을 앓는다(49). 김대중에 의하면 이민자 한청파와 김도원은 그에 인종성이 더해진 "인종적 우울함"에 시달리는데, 이는 인종적 위계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창조성의 원천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51). 데이비드 팔룸보-리우(David Palumbo-Liu)는 아시아인의 신체와 문화가 "근대 서구 메트로폴리스의 콘크리트 보도"(117)라는 크로노토프(chronotope) 속에서 상호접속해 경제화/시장화하는 서사로 『동양 서양』을 읽으며, 그 구체적 예로 역시 호텔이나 백화점과 같은 도시 공간을 제시한다. 위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근대성 비판의 관점에서 『동양 서양』을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주인공의 '도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읽었다.

도시 경험에 중심을 둔 이러한 독해와 비평이 설득력이 있는 동시에 일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작품 내에서 화자의 입을 통해서도 '도시'에 대한 동경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청파는 "서양을 알고야 말겠어"(*EGW* 7)[1]라는 강력한 인식론적 열망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는데, 그가 알고 싶어 하는 '서양'은 작가의 전작인 『초당』(*The Grass Roof*, 1931)에서 묘사되는 전근대적인 '동양'의 반대항으로서의 '서양'이며, 그 맥락에서 한청파는 당시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기계 시대(Machine Age)의 총아, 뉴욕을 열망한다. 한청파에게 있어 뉴욕은 "꿈과 시"(6)로 상징되는 무기력한 전통 속에서 쇠락해가는 조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서, 그가 열망하는 "신속함, 자유로운 활동, 유동성, 비정형의 새로움"(6)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서구가 도시로 대표될 때, 그 대척점에 놓인 시골, 전원, 농촌은 한청파가 떠나온 '동양'의 특성으로 여겨지며, 서양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여겨지지 않는다.[2] 흥미로운 것은 한청파가 서술하는 바, 그는 농촌 출신이지만, '양반'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오기까지 실제 농사일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109). 그가 고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는 '초당'은 구체적인 생활이나 노동의 장이 아니라, 『초당』의 첫 머리에서 인용되는 옛날 시가, "거문고를 베개 삼아/ 한가하게 초당에 누워/ 태평성대의 왕들을/ 꿈에서 만나고자 하였다"(In a grass roof idly I lay,/A kumoonko for a pillow:/ I wanted to see in my dreams / Kings of Utopian ages, 2)에 나오는 관념적

이고 이상적인 공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보스턴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뉴잉글랜드에 있는 히긴스(Higgins) 씨의 농장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경작과 목축 등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본고는 『동양 서양』의 거의 중앙에 배치된[3] 이 농장 생활의 묘사가 단순한 피카레스크적 삽화가 아니라 청파의 각성과 성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위에 놓는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의 제시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작품이 시기상으로는 근대에 속하나, 이성 중심의 근대적 주체관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가의 비전을 '탈근대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의 서술을 레이먼드 D. 보이스버트(Raymond D. Boisvert)와 리사 헬트(Lisa Heldke)가 『식탁 위의 철학자들』(*Philosophers at Table*, 2016)에서 개진하고 있는 "굶주린 존재," 음식, 환대의 개념을 통해 읽을 때 지금까지 『동양 서양』의 분석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난다.

음식과 철학의 관계를 연구해온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르네상스 이후 서구를 지배해온 사고방식, 즉 정신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후, 정신에 우위를 부여하며, 육체를 정신에 부착된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요소로 보는 견해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특정한 철학 이론 체계의 부산물에 불과함을 지적한다(17).[4] 마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생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배관 설비'처럼 이러한 심신 이원론(mind-body dualism)은 인간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육체와 관련된 여러 요소, 예를 들어 물질, 욕구, 감정, 감각 등을 철학의 진지한 사유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아왔다.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손보지 않고 오래 방치된 '배관 설비'처럼 시효가 다되어, 여기저기 누수가 되고, 하수가 역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면 모든 것을 뒤엎어야 하는 대공사가 될 것이 두려워, 세계의 혼란을 설명하지 못하는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3).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라는 이질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요소의 결합으로 보는 이원론은 '정신'과 '육체'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면 인간의 복잡성을

사유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으나, '과'로 상징되는 복잡성은 지배와 통제에 용이하도록, 곧 '대'(versus)의 구도로 바뀌어 위계화되었다고 통찰한다(68). 그들은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키는 이 무자비한 "사상적 절단 행위"를 되돌려, 둘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위(胃)를 가진 존재," 즉 배가 고프므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167).

인간을 "이성적 동물"(Rational Animal), "이성적 행위자"(Rational Agent)로 볼 때와 달리, 그를 "굶주린 존재"로 보게 되면 인간은 더는 '자족의 형이상학'이 그려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142).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기둥 위에서 39년을 구도했던 중세의 금욕주의자 성 시미언 스타일리테스(St. Simeon Stylites, 388-459)의 예를 들며, 정신과 영혼을 우위에 놓는 서양 합리주의의 전통에서 굶주림과 갈증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가신 장애물이지만, "배"(stomach)를 중심에 놓는 관점에서는 '기둥 위의 구도자'가 39년 동안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과 그것을 만들고, 위로 올려보낸 사람들의 노고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134). '굶주린 존재의 형이상학'에서는 '의존성'이 기본값으로서, 외부의 음식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얽히게 된다. '자족의 형이상학'에서 외부에의 의존성은 취약함의 표지이지만, '의존의 형이상학'에서는 생존 능력의 표지가 된다. 인류학자 애나 칭(Anna Tsing)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세계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세심히 관찰하는 "알아차림의 기술"(Arts of Noticing)(37)이 요구된다.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명시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음식'과 '먹는 행위'를 주요한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의 철학은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하고 물질과 생태 중심의 사유를 펼친다는 점에서 분명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의 맥락에 놓여있다. 폐쇄된 독립적 주체로서 대상에게 일방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의 관계와 얽힘 속에서 서로를 구성하고 변화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사유하기 때문이다.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을 허용하지 않으며, '굶주린 존재'로서 '식량'을 생산하며, 최선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만, 결국은 세계의 통제 불

가능성에 열려 있는 인간의 모델로서 '농부'를 제시한다. 이를 참조하여 『동양 서양』의 '농부' 묘사를 읽게 되면, 작가 강용흘의 근대 비판에 놓인 탈근대적 함의가 드러난다.

2. '굶주린 존재'

뉴욕에 막 도착한 한청파는 앞서 언급했듯이 "평생이 걸리더라도, 나는 서양을 알고야 말겠어"(7) 라고 강렬한 인식론적 욕망을 표현한다. 그는 "시"를 찾아 여기에 온 것이 아니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165). 자신은 이곳에서 유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주의자"(9)로 다시 태어났으며, 한 손에는 동양적 지식을, 또 다른 손에는 서양의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삶과 성취, 야망에 도달하겠다는 "파우스트적 꿈"(9)을 꾼다. 이러한 꿈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잘 계획되고, 반석 위에 기획되고 세워져야"(solid, well-planned, engineered and founded on rock, 9) 한다. 청파가 획득하고자 하는 서구에 대한 '앎'은 근대적 의미의 지식, 즉 이성을 지닌 독립적 주체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형태의 지식이다. 보이스버트와 헬트가 설명하는 감각들 사이의 위계를 빌면, 이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접성을 요구하는 미각, 촉각, 후각과 관련되기보다는, 둘 사이의 거리를 상정하는 "먼 감각," 즉 시각, 청각과 관련된다(201).

흥미로운 것은 한청파가 '앎'의 주체로서 확보해야 하는 정신과 이성의 독립성이 '배고픔'과 '추위'와 같은 육체적 요소, 감각으로 바꾸어 말하면 '미각'이나 '촉각'으로 인해 좌절되는 순간이 『동양 서양』의 서사에서 빈번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착 초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로 지인인 조지 점(George Jum)을 기다리는 궁핍한 시간이 열흘쯤 지속된다. 청파는 열렬히 애호하는 셰익스피어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햄릿의 독백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도, 먹을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30)라고 고백한다. 또 다른 예로, 호텔의 주방에서 일하고 돌아와, 마침내 "음식 세계의 노예 노동"에서 벗어나 "순수한 사상의 유토피아적 영역"으로 돌아와, 책을 펼치고 "고양된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차가운 바닷바람이 단열이 허술한 창문 사이로 들이쳐, 지독한 추위에 시달리게 되자 더는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184). 히긴스 씨의 농장에서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두 서넛 시간 자기 전 책을 읽으려 노력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참기가 어렵다(197). 청파는 이때서야 조선에서 자신이 양반으로서 육체노동을 면제받은 것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큰 특권이었음을 새삼 깨닫는다(197). 이러한 배고픔과 추위. 육체의 피로를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성장의 과정에서 으레 경험하는 역경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강용흘의 서술은 단련과 극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 욕구와 감각의 엄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경란이 백인 남성의 성장을 그린 빌둥스로만(Bildungsroman)의 패턴이 청파에게는 "아시아 이민자라는 사실로 인해 특정한 양상으로 굴절"(96)된다고 지적하듯이, 아시아계 이민자 주체에게는 대상을 원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권위가 쉽사리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청파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뉴(New) 호텔에 손님으로 투숙한 김도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룸서비스로 배달된 얼음을 알아보는 장면은 '굶주린 존재'의 관점에서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 한 소년이 얼음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그 소년을 알아봤고, 그 얼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았다. 그것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온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보내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저 얼음이 어떤 단계를 거쳐 냉장고에서 나와,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번에는 나에게 왔는지 알았다. 얼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부러 하나를 집어내 잔에 넣은 후 녹는 모양을 관찰했다. 이상했다! 김은 얼음이 돌고 돌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손을 거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념에 잠겨 있다가, 밑으로 내려갈 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것이 기억나서 나는 정신을 차렸다. (187)

김도원에게 얼음은 말 한마디의 요청과 함께 값을 치르면 그의 방에 도달되는 상품이지만, 조금 전까지 제빙기로 얼음을 만들어 객실로 올려보내는 노동을 하고 온 한청파에게는 다른 감각과 감회를 선사한다. 어쩌면 이러한 감각의 차이가 이주자로서 둘의 운명을 갈랐는지도 모른다. 취약한 처지의 한청파가 끊임없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며, 가내 하인, 판매원, 버스 보이, 웨이터, 농부, 공장 노동자 등의 다양한 직업을 통해 사람들과 얽히며, 세계의 구체적 감각을 익혔던 반면, 김도원은 유럽과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지만, 부유한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현실과 분리된 삶을 산다. 그것을 상징하듯이, 청파가 김도원을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는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차이나타운의 식당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도원은 진기한 요리를 두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86),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도 그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355).

김도원은 한청파에게 "이식된 학자"(transplanted scholar)로서 서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구적 토대"와 더불어 "자신의 고전적 전통과의 접촉을 잃지 말 것"을 충고한다(257). 여기에서 김도원은 자신과 한청파를 달라진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야 하는 '나무'에 비유한다. 한청파도 "뿌리에서 분리된 가지를 가져와 나의 학자 나라를 이 세계의 사상에 접붙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여정을 '식물'의 접붙이기에 빗대어 설명한다(9). 흥미롭게도 보이스보트와 헬트는 인간이 '굶주린 존재'임을 잊지 않을 때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지를 '식물'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들에 의하면 1950년대까지는 '독자적인 양분 조달'이 식물 생존의 지배적인 모델로 여겨졌다(139). 이후 나무의 뿌리를 덮고 있는 박테리아와 토착 곰팡이와 같은 외부 존재가 나무의 영양에 도움을 주고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식물의 식사는 W. H. 오든(W. H. Auden)이 표현한 바, "계속 혼자 먹는 밥"(one continuous solitary meal, *PT* 139 재인용)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연회"(raucous banquet)(14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나무와 박테리아 혹은 곰팡이의 관계는 말하자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symbiosis)에 해당할 것이다.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초의 연구를 인용하며, 식물 생존의 세 번째 모델을 소개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흙 속에

영양분을 분배해주는 '망'(web)이 있어, 지하에서 격자처럼 상호연결된 망을 통해 영양분을 빌려오게 된다. 수정난풀이라는 식물이 이 모델의 예인데, 나무의 뿌리와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균근(버섯)이 통로의 역할을 하고,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가 뿌리를 통해 버섯을 경유하여 수정난풀에 전달된다. 이 모델은 공생의 차원을 벗어나, 수정난풀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무에 수분과 무기질을 제공하는 균근과 같은 유익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나무가 주는 영양에 의존해 살아간다(140). 식물 생존의 모델이 고립과 자족에서 공생, 더 나아가 상호의존성으로 옮겨간 것에 힌트를 얻어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인간이 지닌 결핍, 불완전성은 그가 제공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될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채워져야 할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141). '필요성'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서구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김도원은 자족, 혹은 공생의 관점에서 동양인 학자의 서구에서의 효용을 강조하고, 자신은 동양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때에 도착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한탄하지만(256), '굶주린 존재'의 외부의존을 강조하는 보이스버트와 헬트의 관점에서는 효용보다는 그가 여기에 존재하며, 생존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3. 음식과 환대

『동양 서양』의 비평에서 음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차이나타운의 중국 음식이 아시아계 이민자의 이질성과 이국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음식 포르노그래피"(food pornography) 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사우-링 신시아 웡(Sau-ling Cynthia Wong)은 한청파가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는 백인 여성 트립(Trip)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차이나타운에 데려가 식사를 하고, 말린 과일 등의 이국적 간식거리를 사고, 금주법 시대에 불법인 중국 술까지 구매하는 장면을 초기 아시아계 미국 문학에 나타난 "음식 포르노그래피"의 전형적인 예로 든다(Wong 55). 분명

강용흘의 차이나타운 묘사에는 아시아계 문학에 대한 백인 독자의 기대를 충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국성 전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동양 서양』에서는 중국 음식뿐 아니라, 미국을 탐색하는 한청파의 여정을 따라 매우 다양한 식사 장면과 음식들이 묘사되며, 이는 식사를 함께하는 인물들의 특징과 성격, 그들과 맺는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는 미국에서의 첫 아침 식사로 지하철역 앞의 가게에서 새벽부터 일한 택시 기사의 주문을 따라서 도넛과 우유를 먹는다(14). 선교사 루터(Luther) 씨의 집에서는 8시 정각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아침을 먹는다(93). 신사상(New Thought) 운동을 추종하는 슈미트(Schmitt) 씨 가족은 열렬한 채식주의자인데, 그들의 식단은 흑인 요리사 로렌조(Laurenzo)가 담당하고 있다(259). 퀘이커 교도인 처칠(Churchill) 양의 집에서는 매주 수요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환담한다(295). 보쉬낵(Boshnack) 백화점의 직원들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 나오는 샌드위치와 커피로 급하게 점심을 해결한다(289). 앞서 언급한 뉴 호텔의 주방에서 벌어지는 "뒷문 연회"(Backdoor Banquet, 182)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이들 식사 장면에서도 "음식 포르노그래피"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제와 포함의 정치학이 작동한다. 누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에서부터 시작해, 어떤 음식이 식탁에 오를 수 있는지, 누가 조리를 하는지, 언제,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등을 결정짓는 법규와 관습, 제도와 문화가 존재한다.

더불어 이러한 규범이 잠시간 유예되는 희귀한 순간도 있다. 한청파가 캐나다 내륙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사과를 먹는 장면은 사람들 사이에 작동하는 이 배제와 포함의 정치학이 인간애 앞에서 일시적이나마 물러나는 순간을 보여준다. 메리타임(Maritime) 대학에서의 멘토인 랄프(Ralph)의 초대를 받아 가는 길에 한청파는 프랑스 학생들로 가득 찬 객차를 타게 된다. 그는 프랑스어를 잘 모르고, 그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도 학생들은 청파에게 순수한 호기심을 보이며 그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밤이 되자 함께 노래를 부를 정도로 친해진다. 청파는 그들과 함께 웃을 때, 아침까지 느꼈던

"고립감"(feeling of alienness)에서 벗어나, "공통의 인류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108) 기분을 느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유대의 감정은 오늘 함께 기차에 오른 이름도 알고, 옆에 앉아 식사도 여러 번 한 같은 대학, 같은 기숙사의 학생들이 여전히 타인으로 여겨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역설적으로 규범의 무게를 더 각인시킨다.

'굶주린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동양 서양』의 다양한 식사 장면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존재는 음식이 필요하다"(Living beings need food, *PT* 38)라는 자명하나 자주 외면받는 진리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이는 모든 문화적 맥락을 제거하고 음식을 단지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영양'의 관점에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이 진리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칸트가 보편적 행위의 준칙, 즉, "내가 행동하려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세상을 원하는지"(*PT* 33)를 기준으로 삼는 지상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세우는 동안 윤리학의 범주에서 배제해버린 '환대'가 극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환대를 장소에 연결하며,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207) 라고 정의한다.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그 장소를 좀 더 구체화해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로 환대를 해석한다. 그들에 의하면, 환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 *hospitality*에서 접두사 *hos*-가 어원적으로 "생존의 수단으로서 음식[과 주거지]"(food [with shelter] as a means of preservation, *PT* 37 재인용)를 의미할 정도로, 환대의 주요 수단은 음식이다. 그들은 환대가 문학적으로는 그리스 신화나 호머, 단테에서 보듯 주요한 주제였던 반면에, 이성과 정신을 육체의 우위에 놓는 합리주의 철학에서는 윤리적 덕목으로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 개념에 음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38).

동양으로부터 온 방문자 한청파는 서양의 주인들로부터 환대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배신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혹은 위계를 확인하는 형태로 베풀어진다. 그는 선교사로부터 소개장을 받아 YMCA의 할렘 지부로 일자리를 청하러 가지만, 인종적 이유로 거절당하고(19), 무료급식소에서도 티켓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음식을 주지 않

는다(24). 가내 하인으로 취직하나 서양식 예법에 서툴러 해고당한다(63). 청파가 처음 진학한 메리타임 대학에서 어떤 동료는 지나친 적의를 보이는 반면, 어떤 동료는 지나친 호의를 보이는데, 청파는 어느 쪽이든 그를 대등한 상대가 아니라, 열위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특별 대우라는 것을 알고 있다(106). 한청파는 예기치 않게 히긴스 씨의 농장에서 가장 온전한 형태의 환대를 경험한다.

그가 농장에 가게 된 이유가 『보편 교육』(*Universal Education*)이라는 백과사전의 판매를 위해서였던 것은 아이러니하다. 라이블리(Lively) 씨가 운영하는 서적 판매 회사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한청파에게 판매에 필요한 샘플을 먼저 구매하도록 한다. 회사는 그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어야 하며, 이 백과사전의 판매는 "지식의 빛과 선량한 기독교 정신의 진정한 기초"를 전파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봉사"라고 가르친다(147). 한청파와 같은 유학생들을 "고학하는 훌륭하고 순수한 오리엔탈 기독교인"(134)으로 포장하여, 부유한 고객이 동정심과 연민으로 같은 책을 매년 사도록 한다. 청파는 1년 넘게 판매원으로 일하며, 이 판매 기법의 기만성과 책의 가치에 대해 일찌감치 회의를 느끼고 있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름 동안 서적을 판매하려 히긴스 씨의 농장에 하숙을 얻는다.

회사에서 교육받은 유려한 화술을 이용해 동네를 다니며 주로 "아이가 있는 시골 아낙네들"(192)을 설득해 몇 부를 판매하는 데 성공한다. 어느 오후, 부인만 있으리라 생각하고, "안 사요"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안에 들어간 청파는 점심을 먹으러 들른 그 집의 남편에게 발로 차인 후 쫓겨나게 된다. 충격과 분노, 낙담과 수치심으로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히긴스 부인은 무슨 일인지 묻고, 아이스박스에서 금방 꺼낸 포도 주스를 가져와, "먹고 사는 게, 특히 낯선 나라에서는, 참 어려워요"라고 말하며 위로한다(193).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며, 히긴스 부인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자, 그는 자신의 상황을 냉철히 성찰하고, "그 누구라도 **그런** 형편없는 책은 팔기 어려울 거예요. . ."라고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보지 않았던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193; 원문의 강조). 더불

어 자신을 쫓아낸 남성에 대한 상상적 공감(empathy)에 도달한다. 자신을 적대한 사람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고도의 윤리적 능력으로서, 히긴스 부인의 환대가 가져온 효과이기도 하다. 한청파의 상상에 의하면, 그는 근처의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힘들게 일한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호각이 울리자 노동에 지친 수백 명의 창백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가 공장 밖으로 나온다. 오후의 노동을 하기 전 얼른 허기를 해결하고 잠시라도 쉬고 싶었을 그를 원치 않는 물건의 판매로 방해했으니 화가 날 법도 하다고 청파는 생각한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질지라도 더는 『보편 교육』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194). 당장 다음 주 방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서적 판매를 그만하겠다는 청파의 결단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소외시키는 노동에 더는 종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후 밖으로 나가 히긴스 씨의 일을 지켜보다가, 그의 작업을 도운 후, 저녁 식사에 초대받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양 서양』에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이 묘사되고, 식사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히긴스 부인이 차린 식탁은 육체노동을 하는 이를 위한 식사로 질적으로 충족감을 주고, 무엇보다도 양적으로 후하다.

> 꽹이질을 했더니 피곤하고 긴장이 풀리며 배가 고팠다. 텃밭에서 딴 채소, 냉육, 차, 잼, 신선한 버터와 집에서 만든 통조림 과일 등 먹을 게 무척 많았다. 우리는 차려진 거의 모든 것을 먹었다. 나는 언제나 먹는 것에 자신이 있었다. 배가 불러 더 못 먹는 적은 없었고, 많이 먹은 후에도 탈이 나지 않았다. 그런 나였지만, 농부 히긴스 씨는 당해 낼 수가 없었다. 그는 서두르는 법이 거의 없었는데, 먹는 것에는 예외적으로 매우 빨랐다. 빵 한 덩이, 감자 한 알을 한입에 먹고, 다 넘기기도 전에 큰 고기 조각을 또 먹었다. 식사 후, 나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평소처럼 책을 읽기 위해 방으로 돌아왔다. 으스러질 정도로 낙담했던 마음이 거의 풀렸다. (194)

보이스버트와 헬트에 의하면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과 동시에 고도로 통합적인 활동이다. 음식을 먹는 행위에는 "자연의 생산물, 인간 장인들, 창의성, 영양, 사교성, 나아가 존중"(natural products, human artisans, creativity, nutrition,

sociability, even reverence)이 결합되어 있다(*PT* 18). 낙담한 그의 마음이 회복된 것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과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망 속에 자신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 농부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철학자의 역할을 설명하며, 한때는 "수학적 공리와 논리로 무장하고, 오직 정신의 힘만 써서 답을 구하는"(39) '기하학자'(geometer)가 철학자의 이상적 모델로 제시되었다고 설명한다. 메리 미즐리(Mary Midgley)는 '시인'의 비전과 '법률가'의 논리적 끈기를 합쳐 놓은 인물을 이상적 철학자로서 제시하기도 했다(*PT* 15 재인용). 거기에 더해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농부'를 철학자의 모델로서 제시한다. '농부'라는 직업이 철학자의 미덕을 설명하기에 알맞은 이유는, 그 어느 직업보다도 농부에게는 자아와 세계, 이론과 실천 사이의 이분법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8). 곡식을 생산하고 가축을 키우는 농부의 활동은 고도로 통합적인 활동으로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 "농부는 [···] 사색과 탐구, 추측은 궁극적으로 곡식의 형태로 (문자 그대로)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혜를 더한다. 농부는 가장 선견지명이 있고 논리적인 개념 체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인간의 경험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돼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18; 원문의 이탤릭). 청파의 농장 생활은 그에게 농부로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부여한다.

청파는 숙식과 주급 3달러를 받고 여름 동안 일해달라는 히긴스 씨의 제안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수락한다. 그는 농장에서의 삶을 "단순하고, 건전하며, 온전하고, 시원적"(195)이라고 설명하며, 사실 서구인들은 잘 모르지만, 동양인의 성품이 일반적으로 농장의 삶과 닮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생활이 만족스러웠다고 이야기한다. 청파는

서구인들이 놓치고 있는 유교의 가장 두드러지는 미덕이 "건강한 동물과 존엄한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harmonious balance between being a wholesome animal and a dignified human, 195)임을 지적하며, 인류의 태곳적부터, 특히 농경 지역에서 이 균형이 튼튼히 지속되어 왔으며, 그래서 자신도 이곳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서술한다. 근대 합리주의 전통에서 인간의 동물성은 배제되고 부정되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서구적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평소의 청파라면 인간의 동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동양적 미개함으로 여겨질까 봐 드러내기를 저어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스버트와 헬트가 지적하듯, 농부의 삶 속에서 육체와 정신의 분리는 불가능하기에, 청파는 농사일을 하며, 유교의 미덕을 빌어 자신의 육체성을 긍정한다.

또한 이 부분에서 청파는 서구가 동양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착된 전형을 지적한다. 서구에서 동양인은 "기이한 관습을 지닌 잔인하고 야만적인 이교도이거나 속을 알 수 없는 교묘하고도 교활한 사람"이라는 두 종류의 정형화된 인물에 갇혀있는 데 반해, 실제의 동양인은 "서구의 지식과 문명에 갑자기 노출되어 불안해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한다(195). 동양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것은, 이를테면 앨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가 자신을 형으로, 아프리카인을 동생이라고 표현한(131) 온정주의적 태도를 내면화한 것으로, 앞서 언급된 "야만적인 이교도"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게, 문명적 위계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차단된 '정형화된 인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맥락에 놓인다.

청파는 히긴스 씨는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열망"(196)을 가졌으며, 농장의 삶은 "거의 가혹할 정도로 단순"(197)하다고 말하는 등, 도시와 비교해 농촌의 삶이 '단순'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단순성은 '분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됨'에서 유래한다. 청파는 도시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비루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겼으나, 농장 생활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실제로는 처음으로 "건강한 동물과 존엄한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195)을 체험한다. 육체와 정신의 연결성은 다른 존재와의 연결성으로 확장된다.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봄철의 히긴스 씨를 상상한

다.

> 겨울의 눈이 녹기 시작해 추위가 물러나면, 그는 콩, 옥수수, 그 외 채소들을 심는 데 열중할 것이다; 초봄에 얼음이 녹아 신선한 흙냄새가 땅으로부터 올라오고, 작은 새와 닭이 알에서 깨어나 장난을 치기도 전에, 그의 일은 이미 시작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매 순간 바쁠 것이다. (195-96).

기후와 날씨, 땅과 물, 식물과 가축이 히긴스 씨 부부의 삶과 노동을 구성한다. 자연 속에서 일하는 그들은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라는 감각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연장선상에서 농사를 방해하는 밭의 바위, 잡초, 해충, 새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195)로 인정하게 된다. 청파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 잡초를 매느라 고생하면서도, 잡초에 대해 일종의 연민을 느꼈다고 서술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유용한 생산물을 내지 못할 뿐, 잡초는 곡식이나 과일만큼, 혹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197). 나아가 히긴스 씨 부부에게는 자신들이 사는 시대가 기계 시대라는 자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호미, 괭이와 같은 전통적 도구뿐만 아니라 기계 시대가 제공하는 최신 농기계의 도움을 받아 적은 노동력으로 농장 살림을 꾸려나간다.

농부는 자연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게 된다. 보이스버트와 헬트에 의하면, 농부는 "경험, 최신의 과학적 발견, 기상 예보, 다양한 해충 방재 기술"(168)을 종합해, 어떤 작물을 어떤 시기에 심고, 수확할지 등의 실용적 판단을 내리지만, 그것이 항상 옳으리라는 보장은 없기에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피할 수 없다.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는 것이다(*PT* 161).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이러한 농부의 대응 방식을 "사려 깊은 실천"(thoughtful practice, 32; 126-27)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어구는 정신과 육체, 이론과 실천 간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청파가 농장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전의 도시 경

험이 부정적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경란이 지적하듯, "미국의 근대적 기계 문명과 미국적 효율성은 청파에게 매혹적이면서도 끔찍하고 환멸"(94)스러운 것이다. 특히 학기 중에 하고 있던 호텔 주방 보조 일은 그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뉴 호텔의 주방은 "고도의 비즈니스 효율과 가장 근대적인 위생 방식"(*EGW* 181)에 따라 운영된다. 이따금 연회가 있을 때면 많게는 스무 명 정도의 인력이 임시로 소집되는데, 상근 직원들이 대부분 통통한 것과는 달리 이들은 모두 마르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묘사된다. 연회가 끝난 후 엄청난 양의 남은 음식들이 위생을 중시하는 호텔의 방침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줄줄이 버려지지만, 노동자들은 계약된 노동 행위 외의 활동에 시간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앞에 지나가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청파는 추가 수당을 받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연회가 끝나면 언제나 심한 우울감을 느꼈다고 서술한다. 조금 전까지 진미였던 음식이 한데 섞여 돼지를 먹이기에도 부적절한 쓰레기가 되어있는 광경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미국식 경영 기법의 속임수"(183)로 보였고, "저 버려지는 음식을 이미 배가 부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는 없는지"(183)라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강용흘은 『동양 서양』에서 한청파가 만나는 인물들에 대해 좋은 의도를 지닌 선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매서운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의 장단점을 가감 없이 기록한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돌아온 신학생인 랄프는 멘토로서 청파를 세심하게 돌보고 자신의 집에 초대해 크리스마스 휴일을 함께 보내지만,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데이비드 코퍼필드』(*David Copperfield*)를 교재로 영어를 가르칠 때, 청파는 그가 "백인의 짐"(White man's burden)을 지고 자신을 대하고 있음을 느낀다(118).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다 은퇴한 러브조이(Lovejoy) 박사와 그 부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순수했으나, 의식하지 못한 채 "무자비하고, 맹목적으로 이기적인 서구 세력"을 위해 일한 셈이라고 평가한다(130). 청파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커비(Kirby) 상원의원은 공화적 가치인 제퍼슨주의와 도덕적·종교적 가치인 청교도주의가 혼합된 이상적 미국인으로서 묘사되지만, 청파의 자질을 개인적 예외로서 찬양할 뿐

동양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에는 무심한 인물임이 드러난다(352-53). 필라델피아의 퀘이커 교도인 처칠 양은 세계 각국의 구호 활동을 후원하고, 아시아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지만, 그녀의 식탁은 조건 없는 환대의 장이기보다는 계속 초대받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교한 사교의 장으로 묘사된다(299). 이에 비해 히긴스 씨와 히긴스 부인은 배움이 깊거나 원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평생 같은 곳에서 살았기에 견문이 넓은 것도 아닌데, 인종적, 계급적 편견을 가지거나 우월한 위치에서 자비를 베푸는 식의 태도에서도 자유로운 것으로 묘사된다. 청파는 그들이 피고용인인 자신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며, 신실한 침례교도지만, 젖을 짜고, 닭과 말과 돼지와 소에게 사료를 주느라 일요일에도 쉬지 못한다고 묘사한다(198). 한청파는 낫을 크게 휘두르면서 풀을 베는 히긴스 씨의 모든 동작에 "아름다움과 리듬과 평화"가 깃들어 있어,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서술한다(197). 히긴스 씨의 노동과 더불어, "빵 굽기, 요리, 통조림 만들기, 빨래, 닭 키우기와 달걀 모으기"(195)를 하고 숲에서 야생 과일과 장과류를 줍고, 텃밭에서 콩을 따는(198) 히긴스 부인의 일도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에 버금가게 긍정적으로 묘사된 인물로는 그와 깊은 우정을 형성하는 대학 친구 찰스 에반스(Charles Evans) 정도인데, 공교롭게도 찰스도 매해 여름 농장에서 일하고(191), 신사 농부(gentleman farmer)의 딸과 결혼하는 등 '농부'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275).

5. 나가며

그간 『동양 서양』에 대한 비평과 연구는 그 논지가 이민자의 정체성 형성이나 미국의 근대성 비판, 혹은 인종주의 비판이든 간에 주로 주인공 한청파의 '도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고는 청파가 '초당'으로 상징되는 동양의 농경 지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촌의 삶을 경험해보는 것은 서양의 뉴잉글랜드 농장이 처음이라는 흥미로운 아이러니에 집중하여, 주인공의 '농촌'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동양 서양』을

읽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보이스버트와 헬트가 『식탁 위의 철학자들』에서 육체와 정신 간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유용한 틀로 논의하는 "굶주린 존재," 음식, 환대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읽으며, 강용흘의 근대성 비판에 나타난 탈근대적 함의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동양 서양』의 표층 서사는 서구에 안착하기 위하여,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근대 합리주의적 방식으로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동양인 학자의 동화 과정을 다룬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노력은 자주 배고픔과 추위, 피곤함과 같은 육체적, 물리적 요소에 의해 간섭받는데, 이는 주인공의 성장을 돋보이게 하는 역경의 요소로 볼 수도 있으나, 보이스버트와 헬트의 관점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더불어 대상과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이성적 주체로서의 위치가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주의 인간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특권임을 비판한다고 볼 수도 있다.

『동양 서양』에서 음식은 주류 사회의 관심과 호의를 사기 위해 소수자가 자신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음식 포르노그래피'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나 본고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종교와 계급의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그가 기록하고 있는지, 음식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섞이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다양한 식사 장면이 수렴하는 "살아있는 존재는 음식이 필요하다"(*PT* 38)라는 일견 자명한 명제로부터 '굶주린 존재'로서의 인간의 취약성이 도출되고, 이는 나와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느끼는 다른 존재를 살펴야 한다는 '환대'의 윤리로 이어진다.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훼파하고자 하는 그들 철학의 모델로서 농부를 제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농부는 '굶주린 존재'로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몸으로 알고 있으며, 이성이나 정신의 작용만으로는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알고 있다. 또한 성공적 추수와 소출을 위해 다른 존재와 협력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겸허히 받아들인다. 한청파가 묘사하는 농부 히긴스 씨 부부의 모습이 보이스버트와

헬트의 농부 모델에 꼭 부합하는 동시에, 그들을 묘사할 때 나타난 이례적일 정도의 호감과 경외감은 근대적 합리주의의 폐해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히긴스 씨의 농장에서 여름 한 철을 보낸 후 청파는 학업을 위해 다시 도시의 삶으로 돌아간다. 도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냉담하고 낯선 시선"(199)으로 대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주린 배를 움켜잡고, "떠돌이처럼 살아"가지만(200), 그의 기억 한편에는 며칠을 먹어도 될 만한 푸짐한 양의 점심 도시락을 다정한 작별 인사와 함께 건넨 히긴스 씨 부부의 환대가 자리 잡고 있다. 이후의 서사에서 다시 여름이 다가오자 청파는 자신이 오리라 기대하고 있는 히긴스 부부에게, 사정이 있어 가지 못한다고 말하기 위해, 조선인 친구들과 함께 직접 방문한다(232). 히긴스 부부는 청파를 포함해 다섯 명의 조선인과 조지의 백인 여자친구 준(June)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라이블리 부부가 조지와 준 커플에 대해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한 것(150)과는 대조적으로, 히긴스 부인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원의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한다(233).

보이스버트와 헬트는 그들의 저서에서 근대 철학의 시기를 대략 르네상스에서 1차 세계대전까지로 잡고 있다(38). 그들의 분류에 따르자면 『동양 서양』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20년대는 근대적 사고가 막 종언을 맞은 시기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전히 생리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이 거세된 정신 작용을 하는 "사고하는 자들"(thinkers, *PT* 38) 사이에서 『동양 서양』은 "굶주린 존재"로서 음식을 구하고, 주변과 풍요로운 상호작용을 하며, 다른 굶주린 존재를 환대하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PT* 38) 탈근대적 존재의 비전을 섬광처럼 제시한다.

Notes

1) Kang, Younghill. *East Goes West.* Kaya, 1997.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안에 *EGW*와 쪽수로 표시한다. 이 작품에서의 인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쪽수만 표시한다.

2) 『초당』에서 한청파는 농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도쿄 등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므로, 서양과 동양을 도시와 농촌, 근대성과 전근대성으로 나누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분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강용흘이 조선에서의 삶을 '초당'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한 것과 『초당』의 결말이 조선에서는 불가능한 희망과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는 것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의 사고 내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이 성립한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3) 369페이지로 이루어진 Kaya 출판사 판에서 농장 생활의 묘사는 191쪽에서 199쪽을 차지한다.

4) Boisvert, Raymond D. and Lisa Heldke. *Philosophers at Table*. Reaktion Books, 2016.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PT*와 쪽수로 표시한다. 맥락상 이 책에서의 인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쪽수만 표시한다.

인 용 문 헌

김대중. 「강용흘의 『동양, 서양으로 가다』에 나오는 코스모폴리탄 멜랑콜리아」. 『동서비교문학저널』, 30호, 2014, 45-71쪽.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민진영. 「『동양, 서양으로 가다』—20세기 초반 미국의 근대성 비판을 중심으로」. 『미국소설』, 14권 2호, 2007, 75-99쪽.

이경란. 「강용흘의 『동양 서양에 가다: 오리엔탈 양키 만들기』: 에스닉 빌둥스로만의 정치학」. 『근대영미소설』, 13권 2호, 2004, 81-102쪽.

Boisvert, Raymond D., and Lisa Heldke. *Philosophers at Table: On Food and Being Human*. Reaktion Books, 2016.

Kang, Younghill. *The Grass Roof*. 1931. Follett, 1966.

_____. *East Goes West*. 1937. Kaya, 1997.

Lee, Sunyoung. "The Unmaking of an Oriental Yankee." *East Goes West,* by Younghill Kang. Kaya, 1997, pp. 375-99.

Palumbo-Liu, David. *Asian/American: Historical Crossings of a Racial Frontier*. Stanford UP, 1999.

Roh, David S. *Minor Transpacific: Triangulating American, Japanese, and Korean Fictions*. Stanford UP, 2021.

Schweitzer, Albert. *On the Edge of the Primeval Forest*. E-book ed., translated by Ch. Th. Campion, A & C Black, 1924.

Tsing, Anna.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Princeton UP, 2015.

Wong, Sau-ling Cynthia. *Reading Asian-American Literature: From Necessity to Extravagance*. Princeton UP, 1993.

Abstract

Hospitality rendered by a "Hungry Being": *Younghill Kang's East Goes West*

Hayoung Choi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ostmodern critique of modernity and rationalism in Younghill Kang's *East Goes West* by focusing on the protagonist Chungpa Han's rural experience, an aspect that has rarely been addressed in the existing critical literature on the work.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s the text primarily through concepts of a "hungry being," food, and hospitality as advanced in *Philosophers at Table* by Raymond D. Boisvert and Lisa Heldke, who seek to dismantle the mind-body dichotomy by contemp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philosophy.

While Chungpa Han pursues western knowledge by grasping external objects as a rational subject, his intentions within the narrative are frequently thwarted by material elements such as hunger, cold, and fatigue. As Boisvert and Heldke point out, this demonstrates that a human being is not a mind housed within a body, but rather a "hungry being" and dependent, rather than independent, entity. The various dining scenes represented in *East Goes West* illustrate the cultural dimensions of food while simultaneously connecting to the self-evident yet often ignored truth that "living beings need food." This realization further extends to an ethics of hospitality where one "hungry being" welcomes and serves another. Boisvert and Heldke propose the farmer as a symbolic figure that deconstructs modern rationalist dichotomies, and

Higginses, as depicted by Chungpa, offer a concrete illustration of this figure. Although Chungpa returns to the city after the summer ends, his farm experience reveals a brief but powerful postmodern critique emerging from the very height of modernity.

Keywords: Younghill Kang, *East Goes West*, Raymond D. Boisvert, Lisa Heldke, hungry being, food, hospitality

논문접수일: 2026.9.15
심사완료일: 2026.9.30
게재확정일: 2026.10.08

이름: 최하영
소속: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육전임교수
이메일: ha0choi@konkuk.ac.kr